통권 139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5.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해!

사진 / 양심수후원회 회원 김민정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 • 2 / 이 달의 시 김수룡 출소장기수선생님 • 4 / 출소장기수 김종하 선생님을 찾아서 대구양심수후원회 • 6 / 출소양심수 박용진위원장을 찾아서 김현희 편집위원 • 8 / 양심수 하영옥님 출소현장을 찾아서 김미성 간사 • 9 / 양심수 김환석님께서 보내온 편지 • 10 / 양심수 윤경화님께 보내는 편지 이우경 회원 • 11 / 이석기님 면회를 다녀와서 김소중 회원 • 12 / 산행기 이종섭 회원 • 13 / 회원교육강좌 보고 김희정 회원 • 14 / 특집 '북미간 핵공방의 진실' • 16 / 논단 '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수배자 모임 • 20 / 제15차년도 총회보고 • 25 / 나의 삶 나의 일터 이창희 회원 • 29 / 시사만화 • 30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1 / 재정보고 • 39 / 회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등 양심수 특별사면의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정부는 4월 30일자로 양심수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 · 복권을 단행했다.

하영옥, 박경순씨 등 기결 양심수 13명에 대한 잔형집행면제(석방)와 집행유예 또는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났던 강순정, 고성화씨 등 39명에 대한 잔형면제사면 및 복권, 이현수, 정갑득씨 등 916명에 대한 형선고실효사면 및 복권, 전만규, 황선동씨 등 24명에 대한 형선고실효사면, 그리고 문규현, 단병호씨 등 432명에 대한 복권조치였다. 이들 사면 대상자를 공안당국 분류방법으로 보면 이른바 대공관련이 149명이고, 한총련 등 학원관련이 364명, 노동관련이 568명, 집단행동관련이 343명이었다.

이번 4 · 30사면조치는 이제까지 양심수 특별사면을 주장해왔던 사회여론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라도 반영되었고, 악명 높았던 준법서약제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데서는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를 일정부분 나타낸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정부는 이번 사면조치가 갈등과 반목을 관용과 화해로 씻겨내고 참된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실행했고 사법권 행사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 · 30사면조치로 구속양심수 45명 가운데 겨우 13명만이 선별석방 되었고, 정치수배해제조치가 없었음은 큰 실망과 아쉬움으로 남게 했다. 바로 이석기씨 등 기결양심수 3명을 제외시킨 것은 사법권 행사의 원칙에서 형평성을 잃은 조치였으며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과 노동관련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가 없었음은 '참된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는 차원' 하고는 거리가 먼, 4 · 30사면조치의 의미마저 빛을 바래게 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를 제외시킨 점도 사회여론을 외면한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지나간 일에 매달려 시비를 가리기 전에 양심수 특별사면의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려 한다. 4 · 30조치가 있기 전 책임 있는 당국자와 면담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미결 양심수가 사면권 행사의 범위 밖이라면 기결 양심수는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었고, 한총련 관련자를 비롯한 모든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이던 수배해제 조치가 반드시 양심수특별사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바 있었다. 물론 당국에서는 수배해제 역시 사면권 행사와는 별개의 조치로 검토하겠다 했지만,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함께 정치수배문제가 미뤄짐에 따라 한총련대의원의 잇단 강제연행 등 매우 분노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총련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언급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4월 13일 울산대 김기호 1999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 강제연행 당한 일을 비롯하여 4월 27일엔 관동대학 김인범 2001년 동아리 연합회장이 연행되었고, 4 · 30사면조치가 있었던 당일에는 13기 서총련의장이며 2000년 경기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제민 학생이 강제연행 당했다. 특히, 박제민 학생은 시력을 거의 잃고 있으며 다리골절상을 앓고 있는 중환자임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되는 반인권 · 반인륜 행패가 자행되었다. 5월 2일엔 봄농촌활동을 떠나던 조선대학교 정준영 학생이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고, 5월 3일엔 이윤미 전남대 2001 총여학생회회장과 박미라 같은 대학 사회대학생회장이 조선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나오던 중 학교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보안수사대원에게 강제 연행되었다.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잡아 가두는 정부의 이 같은 조처에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5월은 너무 멀고 4월 안으로 한총련합법화와 수배자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되고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말과 따로 놀고있는 공안검찰 보안수사대는 과연 어느 나라 기관인지 국가의 통치체계가 바로 서 있

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던 수배학생 가족들이 마침내 5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제민 학생의 어머님이 삭발을 함으로써 당국의 한총련 탄압에 항의하고 있었다. 경찰청 앞에서의 침묵시위와 법무부 항의방문도 있었다. 이제 가족들의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자식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겠다' 고 하는가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분신이라도 하겠다' 고 하는 어머님도 있었다.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았다. 사회단체들의 잇단 수배해제촉구 기자회견이 있었고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로 잇달았다. 보건의료단체의 한총련대의원(수배학생)에 대한 공개검진과 결과발표 등으로 수배학생들이 겪고있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낱낱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공개검진 장면을 보고 한총련이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수배를 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하다고 말했었다. 수배학생 가족들과 한총련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대표들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만나 수배해제를 촉구할 때도 적극 검토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4·30사면조치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언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란 언급도 없었다. 보란 듯이 공안검찰과 보안수사대는 제 세상을 만난 듯이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탄압과 수배조치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 공안당국은 입버릇처럼 한총련의 친북성을 말하며 강령개정을 비롯해 더욱 변해야한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친북성이라는 단정은 냉전·공안 시각일 뿐이다. 예로서 이북에서 자주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남에서 자주를 외치는 것이 친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 핏줄로 수 천년을 같은 문화공동체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남과북에서 같은 주장과 같은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미 학계와 법조계에서 여러번에 걸친 학술토론회에서 밝혔듯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적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했었다. 또한 어떠한 주장자체가 탄압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어떤 파괴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머릿속에 지닌 생각이나 주장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처벌하는 것은 반민주, 반인권적인 야만행위일 뿐이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배경에는 한총련의 강령·규약이나 어떤 사업내용에서라기 보다 1996년 연세대 대탄압에서 보여주었듯이 김영삼정권의 다음해 대선을 앞둔 가상적을 창출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또한 5기 한총련이 1~4기와는 다르게 이적단체로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할 때 "한총련은 매기마다 지도부가 새로 바뀌고 활동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었다. 그렇다면 6~10기까지에는 어떠한 폭력시위도 없었고 특히 9기 때는 공안당국에서 문제시했던 연방제통일 강령을 6·15공동선언으로 대체했고 10기에 와서는 여성·환경·인권 조항을 보강하는 강령개정을 사회에 내놓아 공청회까지 연바있다. 과연 공안당국은 한총련이 무엇을 어떻게 변하라는 것인가. 오히려 변해야 할 데는 공안검찰이고 보수냉전시각이고 상투적인 흑백논리이다.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문제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범위 밖이어서 4·30사면조치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빠른 후속조치로서 170여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해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정치수배학생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기소유예 조치를 단행하는 일이다. 검찰에서는 이른바 '별건' 을 말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총련 탄압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한총련의 합법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들은 이미 많게는 7년이란 오랜 수배생활을 했고, 더구나 이들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세력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뿐인가 제11기 한총련 의장은 공개방송에 출연했었고 대통령이 출연하는 100분 토론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었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정치수배자들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4·30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이석기씨 등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과 노동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빠른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하라!

전라북도 유격대 사령부(회문산 대심멀) -할미야

김수룡 출소 장기수선생님

빨치산에 갔다 올게라우
성우는 종종걸음으로 집을 나갔다

성우는
두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미는 무슨 산이 그리 높기에
돌아오지 않는다냐

너를 보낸 뒤에
이 할미는
수많은 밤을 울음으로 지샐 것이다
너를 보낸 뒤에
이 할미는
낯모를 구두발 소리에
얼마나 위협받아야 할지 모른다
토벌대가 지나갈 때마다
산에서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 것인가

성우야!
너는 잘있느냐
성우야 총과 함께 싸워라
온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싸움
네 아비가 말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싸움
그리고 성우가 말하는
매국노와 악질 자본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일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그 싸움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성우야!
너는 가서 싸우거라
깊은 산 험한 산 투구봉 가슴속에
오늘도 옛같이 억새풀만 나부끼네

성우야!
너는 끝까지
최후의 적 하나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몰아낼 때까지
위대한 수령님이 걸었던 항일투쟁의 길
그 이름만 들어도 강도 왜적은 벌벌 떨었다던
백두산 호랑이 빨치산
흘러간 그 시절처럼
눈물 젖은 두만강을
건널 뻔한 우리가 아니던가

다시는 나라 잃은 신세가 되지 말고
항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위업을 실현하자

어느 날 어두운 밤이었다
폭풍이 불고 번개 불이 번쩍거리는 밤
〈기포야 기어라 벼락은 때린다
독수리는 어디 가고 따궁새만 운다〉

이 구전은 당시 백성들이 나돌고 있는
배트라와 대심멀에 근거지를 두고
유행하던 말이다

전방인 구림방면에서 들어오는 적을 방어
후방인 갈담방면에서 독수리병단이 맞고
서쪽인 쌍치방면은 번개병단이

카추샤병단과 탱크병단 기포병단
여분산 내장산 방면에서 유격투쟁을 하고

어느 날 부락에 50여명의 무장부대가
어깨와 머리에는 칡잎과 떡갈나무 가지로
깊게 위장하고 당산나무 아래
터밭에 줄지어 앉았다

동네 조무래기들이
부대 곁에 서서
신기한 듯이 훑어보고
아낙네들은 겁에 질려
숨죽여 말을 주고받았다
저분들이 산사람이라 한다냐?
저 사람이 빨치산 대장인가봐
맨날 총알이 콩볶듯 했는데 어떻게 살았데야?

할미는
성우가 있는가
뚫어지게 찾았다
할미는
빨치산이 산인줄만 알고 있었다
사람 살리는 산인게벼
우리 산은 그런 산이 많이 있다
항일투쟁의
영산인 백두산
제주도 한라산의 4 · 3투쟁
조국해방투쟁의
지리산 빨치산 항쟁
강원도 태백산 투쟁

산은 산인데 모두 착한 산이다
빨치산은 먹구름을 걷우는 산이다
자유 대단결을 실현하는 산이다
우리 민족끼리 모이는 산이다

지난번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
빨치산 위령추모제를 지냈다
지리산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간 길
오직 하나의 가야할 길이라면

섬진강 기슭에서
위령 추모제를 지냈다
아~ 아
빨치산은
조국의 자유를 지킨다

그 날이 오길 소망한다

대구 양심수후원회

며칠 째 기승을 부리던 황사 바람도 한 풀 꺾이고 맑은 봄 햇살이 내비치던 일요일 오후, 출소 장기수 김종하 선생님을 뵈러 가는 길은 너무나 따뜻했다.

칠곡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삶터와 일터가 함께 있어 선생님에게는 더욱 소중한 그 곳. 당신의 아파트를 관리하기에 가지는 남다른 애정으로 힘겨운 것도 모른다고 하신다. 선생님의 땀 냄새가 흥건히 베여 있는 듯한 그 관리실에서 삶의 역정이 조용히 흘러 나왔다.

1929년 12월 13일, 평안북도 영변 태생.

일제의 만행이 난무하던 그 때 어린 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45년 해방 이후 민주 청년 동맹(민청) 활동과 자위대(마을 자체로 조직된 보위대)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전쟁과 함께 남으로…

그러던 중 50년 전쟁이 발발, 선생님은 보위성 소속 기계화 부대인 603 부대의 일원으로 남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이 고향을 떠나오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소속된 기계화 부대는 4인 1조로 구성되어 각 지역을 돌면서 무기 등의 보급을 하는 부대로 선생님은 그 중 지프차 운전을 담당하셨다. 임무수행 당시,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다시 전라도를 거쳐 경상도까지 하루에도 몇 백 리 길을 달리곤 했다.

그러던 중 사천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발목 부상을 입고 야전 병원에 후송,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남원으로 이송된다. 남원 병원에 입원 시, 부대의 후퇴로 함께 후퇴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전주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한 미군의 폭격으로 결국 차를 버리고 지팡이에 아픈 몸을 기댄 채 강하게 존재한 생존의 의지로 입술을 깨물며 계속 발걸음을 옮겨 후퇴하게 되었다.

빨치산 활동의 시작

힘겨운 발걸음이 멈춘 운장산(지금의 진안, 금산, 완주의 경계 지역). 이 곳에서 본격적인 빨치산 활동을 시작하여, 충남 빨치산의 근거지인 대둔산으로 이동. 도당 호위부대를 맞아 활동하게 되었다. 토벌대와의 전투가 계속될수록 대원의 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 송영길 동지와 두 분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54년 8월, 토벌대가 빨치산을 토벌승리로 자인하며 기고만장하던 때에 두 사람은 천안 파출소를 습격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로 이 사건으로 인해 천안 경찰서장이 교체되었다고 한다.

두 명의 빨치산 활동은 어려웠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결국 빨치산 활동이 발각되어 경찰에 구속되게 된다.

체포되던 55년 1월 2일

송영길 동지의 검거로 혼자 남게 된 선생님은 과거에 파 놓은 비트(비상 아지트)를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다, 결국 55년 1월 2일 비트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될 당시 자진하기 위해 가슴에 총을 대기도 했고 약을 먹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이 되어 체포되었다.

검거 후 천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빌미 삼은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고, 그 후 대구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사 구형 사형.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재판 자체도 형식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검사와

의 싸움에서 선생은 결국 무기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대구에서 시작된 수감생활

무기형에서 4·19 당시 20년형으로 감형, 사회를 만날 날을 손꼽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전향 공작의 바람은 거세게도 불어댔다.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옥에서의 재판(?)을 받아 7년의 옥살이가 불어나게 되었다. 대전, 전주, 광주 등을 거쳐 대구 교도소로 다시 옮겨 다녀야 했던 수감생활도 우여곡절 끝에 끝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옥문을 나와서 북으로 가려 했다는 소망 그리고, 출소 후의 세상…

출소 후 생활

인간으로써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했었을 긴 시간의 옥고를 무사히(?) 끝내고 사회를 향해 내딛었던 곳이 바로 대구이다.

선생님은 83년 6월 3일, 28년만에 출소하셨다. 남쪽에 혈육 뿐 아니라 연고도 전혀 없던 선생님은 대구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했다. 출소 후 3일 뒤 공사장 막일을 시작해 그후 일거리를 찾아 지산동, 범어동 등 이곳 저곳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갔다. 살아남기 위해 찾았던 그 공사장에서 선생님은 소중한 인연을 맞이하셨다. 바로 한 여인을 만나 84년 12월 다른 10여 쌍과 함께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 칠곡에 보금자리를 꾸렸던 것이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생각

8·15 해방 당시 면 농민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형님은 6·25 당시 국군의 공세 때 지도급 인사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한다.

긴 옥고를 치르는 동안 그 어떤 것 보다 갈증 했을 고향에 대한 생각,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생각하면 뭐합니까?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을…"

그 당시를 회상하며 체념하듯 던지는 선생님의 한숨 섞인 음성은 그 갈증을 잊기 위해 노력했을 모습을 상상케 했다.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씀…

"아직 눈에 선하게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형님의 딸이야. 얼마나 귀여웠는데…"

지난 2000년 9월, 63분의 선생님들이 먼저 고향 땅을 밟기 위해 떠나실 때, 선생님은 북녘에 살아 있을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민들레의 집 선생님들께 고향집 주소를 적어 드리며 소식만이라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지 그 대답은 못 들었어도, 분명히 살아있을 내 가족들과 친지들은 김종호, 김창원 선생님을 통해 내가 생존해 있음을 들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주위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라도 한 번 다녀오라고 이야기 하지만 선생님은 싫으시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 그 곳에 가지 못할 바에야 금강산에 간들 뭣하겠냐고 하신다.

김소월의 시로도 많이 알려진, 그 유명한 '영변'이 고향이라며 자랑하시던 선생님. 그러한 선생님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신청을 해놓고 계신다.

하루빨리 아름다운 고향 땅을 밟아 직접 가족의 손을 잡고 "살아있었구먼…"하고 말씀하실 그 날이 오길 소망하게 된다.

● 이 글은 대구양심수후원회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김현희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사진 제공 : 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의정부교도소에서 지난 4월 29일 출소한 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박용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5개월 옥살이 뒤끝이어선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옥에서 나온 지 꼭 일주일 되었는데, 건강은?

몸무게가 10Kg쯤 줄긴 했는데 종합검진결과 건강은 다 좋다고 합니다.

옥살이하게 된 경위가?

민중대회 마지막 마무리 연설 중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때 내걸었던 정치구호가 "김대중 퇴진"이었는데, 주최측인 민주노총 안에서도 찬반양론 논란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권 쪽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더라는군요. 그 날 80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 8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 지시였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진압 책임자가 박용진 잡아오는 녀석에게 '휴가' 보내 줄 거라고 했다더군요.

잔형면제 · 사면으로 나왔지만 '복권'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싸워서 마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 서명도 받고, 앞으로 청원 투쟁해야 합니다.

밖에 나와 가장 좋았던 건?

그거야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아직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구요.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부터 많이 받기만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갚아나가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나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내와 장보기'였는데 해봤지요. 손님 치를 저녁상 준비하느라 수유시장에 함께 장보러 갔었습니다. 그 동안 집사람이 힘든 표시 안하고 잘 견뎌주어 고마웠습니다. 항소심 재판정에서 실형 떨어질 때 딱 한번 울던데…

처갓집에다가는 '유학' 간 걸로 말해두었는데 명절 때라든가,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지요. 앞으로 작은 일들도 유심히 살피고, 바깥일 우선에서 벗어나 가족과 집안일 돌보는 것에도 신경 쓸 각오입니다.

감옥이라는 게 일상으로부터 완전 단절된 곳인데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느낀 건?

그래요. 생소하고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동안 이사를 해야했기 때문에 새로 이사한 집안에서 어리버리한게 영 감각이 이상한 거예요. 대구에서 먼저 출소한 심재춘씨가 방안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왜 그러고 서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던데… 저는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려다가 잠시 멍해지는 거 있죠. 설거지하려고 소매를 걷어 부쳤는데 수세미가 어디 있는 지, 음식물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어쩔 줄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거죠. 그리고 도시 풍경이라는 게 금세 달라지기 일쑤지만, 상가나 아파트가 들어선 동네 모습도 참 낯설더군요.

앞으로 닥친 일이라면?

지구당 일이지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

하나 정리해서 필요한 역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위원장을 옥에 두고 대선도 치뤄야 했고 모두들 힘드셨을 텐데 참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우리 민주노동당이 세운 원칙과 정책 내용을 널리 알려내야 하구요, 2004년 총선도 닥치니까 복권 투쟁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양심수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은?

안에 있으면서 정말 큰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민가협 목요집회에도 어머니 모시고 함께 활동해야 하고, 아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두 나올 때까지 싸워나가야지요. 그리고 권오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모두 찾아뵙고 인사 올렸어야 하는데 말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구당 홈피에 출소인사를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인터뷰를 끝낸 후, 점심 식사를 하려고 지구당 사무실 옆 골목에 있는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렸는데, 비 오는 날은 부침개가 제격이라 맛있는 해물파전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대전교도소 하영옥님 출소 현장을 다녀와서…

김미성 양심수후원회 간사

어제 비가 참 많이 내리더군요. 하늘도 이 나라의 무심함과 편협성을 아는지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처럼…

어제 양재구민센터에서 모여서 4년여 동안 옥살이 끝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시는 하영옥님을 환영하러 대전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대전교도소를 향하는 차에 올라탈때 이석기님 누나인 이경진언니께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다며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참 맘이 안좋았습니다.

난 고생한 것도 없는데 고생하였다며 잘 다녀오라고 배웅하는 언니를 보며 그저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석기님도 출소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모님은 아직도 병마와 싸우며 아들 출소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데 혁춘이가 할머니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나오면 누구랑 같이 살아?"

"혁춘이랑 엄마랑 살지…"

"그럼, 잠도 같이 자고 하는거야?"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감옥에 보내놓고, 아빠 사랑을 흠뻑 받을 나이에 아빠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혁춘이가 참 안되보이기도 하고 이제 아빠랑 절대 떨어지는 날 없기만을 마음 속으로 빌어보았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전 사회단체 분들이 먼저 도착하여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도 양심수석방을 위해서 모두들 너나할것 없이 함박웃음으로 하영옥님 환영행사 준비에 분주함을 보였습니다.

많은 취재기자들이 함께한 자리에 하영옥님이 드디어 감옥문을 박차고 교도소 밖으로 향하는데 금새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하영옥씨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혁춘이 얼굴에도, 하영옥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이고 제 얼굴에도 함박꽃이 하나가득 피었습니다.

저는 양심수 출소 환영식 참석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뭉클하더군요.

한가지 아쉬운점은 하영옥님이 소중언니를 먼저 찾았지만 언니가 다른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 하영옥님을 빨리 만나뵙지 못하고 전화로 환영인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면회 대기실에서 환영식을 여는 도중에 저는 기획모임을 하기 위해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영옥님, 김소중님, 혁춘이, 할머니 이렇게 식구가 한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래도 가슴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차디찬 감옥안에서 병중에 누워계신 노모님만을 생각하실 이석기님과 그밖에 사면되지 않은 양심수들을 위해 열심히 싸웁시다. !!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그날까지~

대전에 함께 다녀오신 분은 권오헌 회장님, 김영식 선생님, 김미성, 이창희 간사와 도보순례 장정을 마치고 따로 내려오신 이정태 운영위원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꿈꾸며 또 다시 앞을 바라봅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보십시오

비가 그치고 나니 다시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그리 즐겁지 않은 이곳 생활도 다소 다르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으로나마 남들처럼 꽃놀이도하고, 도시락 싸서 소풍가는 상상을 하면서 즐겁고 빠르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니 이곳 생활이 한결 쉬워집니다.

하지만, 몇 년 또 몇십년을 이곳에서 지내신 분들을 생각하니 할말이 떠오르지 않고 답답해질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달 남짓한 생활의 교도소 초년생입니다. 이 두 달의 기간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저는 3월초와 오늘 4월 14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로부터 두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잘 아시다시피 영치금이었습니다. 지난 3월초에 처음 받았을 때는 이곳 생활 적응에 정신없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의 우편물에 대해 특별히 생각지 못하고 단순하게 넘겨 버렸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두 번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우편물은 그동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먼저 저에게까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편물은 감사의 마음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 크게 했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이곳에 있는 가까운 동료도 챙겨내지 못한 과거의 모습, 그리고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영치금을 받고도 그냥 으레 있는 현상이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모습이 부끄러웠으며 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운영과 활동과정이나 어려움, 영치금 3만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조직의 당연한 몫이려니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한심했답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한총련합법화' 등 민주화 투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의 조건만을 생각하고, 핑계삼아 편히 지내고있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줄만 알고 당연시 할 줄만 알았지 도움이 되거나 저의 몫을 다하지 못한 저에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의 우편물, 영치금 3만원은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이곳 생활과 이후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못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4일

목포교도소에서 김환석 드림

김환석님은 목포대생으로 6.7기 한총련 불탈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현재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좋은 친구하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윤경희님 에게

이번주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울산에 다녀오고, 시집간 언니랑 형부가 집에 왔다가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덕분에 저번에 메모해놓은 그분의 성함과 여러가지를 잃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게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그냥 그 친구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경 입니다. 학번은 92학번 이구요. 한참 선배죠?

올 봄에는 비가 참 많이도 오는 거 같아요. 봄비는 왠지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데, 그곳에선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도 바뀌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런 편지를 써야하는 지금이 조금은 맘이 아픕니다.

한총련 대행이라고 했나요?

지금 님의 맘 상태가 어떨지 잘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노래패였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집회 때 노래하고, 선거할 때 문선대 하고… 이렇게 4년을 보냈지요.

지금 님도 3학년이나 4학년쯤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의 님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좋겠습니다. 님과 함께라면 좋겠구요.

지금은 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서 길게는 못쓰겠습니다. 직장일도 조금은 많구요. 담엔 좀더 많은 얘기, 진지하게 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하나 만났다고 생각하고, 답장 주세요.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봄이라곤 하지만 날씨가 오락가락 하니 꼭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2003년 5월

전북 군산에서 이우경 드림

이우경님은 북으로 1차 송환되신 손성모, 김창원 장기수선생님과 편지를 주고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전북 군산에 사시며 다시 편지쓰기를 하고자 양심수후원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남아 있는 한 사람!

김소중 민혁당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던하영옥님 부인

체증… 그것은 분명 체증이었다. 지독히도 오래된 속 막힘처럼 답답한 가슴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왜 이런 일이 지속되는지 머릿속은 헝클어질대로 헝클어져 제대로 정신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4월 29일, 그 역사적인 순간…

굳은 철문이 열리고 남편이 감옥문 밖으로 나왔다. 그 이름도 거룩한 동지들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 왔다. 그토록 오래도록 열망하고 기다리고 고되고 힘든 싸움 끝에 구출해 낸 동지들이었건만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로 하여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으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지도 못하였다.

이석기씨와 그의 노모가 계속 나의 목을 매이게 하였다. 나의 남편은 돌아왔건만 아이들은 아빠를 보는 순간 표정까지 환해져 어리광이 '떴건만' 난 환영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조차 고기 한 점 넘길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남편이 못나오고 이석기씨가 나와 노모와 따뜻한 밥 한끼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마음도 편하리라!

오늘부터 죄지은 맘에 발은 편히 뻗고 잘 수 있을 런지… 그런 마음으로 삼일을 보낸 후에야 하영옥, 임태열, 한용진, 최진수씨와 함께 이석기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선 것이다.

대기실에서는 왜 그리 서성였는지… '삐' 하는 벨소리에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 "안녕하세요?" 라고 조금은 과장되게 환한 인사를 건네었다. 순간 마주친 석기씨의 표정과 그 특유의 해맑은 미소가 문득 내가 왜 이 사람 걱정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마음을 편안하고 가볍게 만들어 버렸다.

뒤늦게 들어온 공범(?)내지는 동지들이 서로 반가이 얼싸안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몇마디의 형식적인 멘트도 오가고 하였다. 잠시 썰렁해진 분위기를 틈 타 "저 아팠어요. 하지만 이젠 건강해요" 란 말을 하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아팠단 핑계를 대면 조금은 덜 미안해지지 않을까란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다.

교도관이 인원을 문제삼아 제재를 가하기에 공범(?)들만 남겨두고 나는 대기실로 나왔다. 남편에게 마누라를 업고 다녀야 한다는 석기씨의 말을 뒤로 한 채…

공범(?)들끼리 나눈 대화는 주로 어머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석기씨는 "어머님께서 막내아들을 보셔야 에너지를 받아 기력을 되찾으실텐데…" 했단다. 평소 낙관적인 석기씨가 동지들을 만나니 좀처럼 하지 않던 자신의 걱정거리를 하소연하였던 것이리라.

아침 9시의 약속이 경기도 각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 길어져 면회를 마치고 나니 그럭저럭 12시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 있었다. 석기씨를 만나고 나니 오래된 체증이 뚫리고 나면 갑작스레 허기가 밀려오는 것처럼 너무나 배가 고파왔다.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른 우리 일행을 한용진씨가 맛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며 한시간 정도를 헤매게 하다가 도착한 식당에서 제법 괜찮은 식사와 낮술도 한 잔씩 나누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한 턱 낸다던 H씨가 카드가 한도 초과되었다며 미안한 척 하길래 속이 뚫린 기념으로 기꺼이 바가지를 썼다.

남아 있는 한 사람!

그를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며 그냥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자신이 할 바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발뻗고 잠을 잘 날이 빨리 올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하여 행복할 날들이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희망

이종섭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흐린 날씨에 눈을 비비며 휴일 아침을 맞이했다. 좀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오늘 산행이 있다는 사실이 이부자리를 박차게 만들었다. 2월에 처음 산행을 시작하면서 매번 산행에는 꼬박꼬박 가겠다고 했었는데 지난 3월에 가지 못해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오랫동안 지울 수가 없었다. 일요일 아침 일찍 눈을 뜨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쉬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한동안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떠날 준비를 했다.

차 타고 가는 길에도 빗소리가 예사롭지 않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희형에게 비가 와도 등산을 하느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 버스를 타고 약속장소인 그린파크로 향했다. 늦은 출발 탓에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하신 권오헌 회장님을 비롯해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빗줄기가 조금은 굵어져 예정과는 달리 중간에 일찍 내려오기로 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그간 내린 비로 진달래가 많이 지기는 했지만 진달래는 마치 불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습이 정열적으로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 생을 살면서 신념을 지키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온갖 고난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줄곧 한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들의 모습에 아침부터 편안하게 쉬고자 하는 유혹과 한참을 싸웠던 내 모습이 비춰지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비 오는 날의 산행은 맑은 날과는 또 다른 기분을 맛볼 수 있기에 오르다보니 어느새 원래 예정했던 코스를 그대로 가게 되었다. 산에 오르는 동안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는 김교영 선생님 덕분에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었고, 같은 모습으로 대여섯 개의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내려올 때는 43년 전 그 날을 생각하며 4 · 19 탑으로 가서 묵념을 하기로 하고 걸어 내려왔다. 미완의 혁명 이어서였을까. 4 · 19 탑 주변에 있는 기념 동상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기념 화환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버젓이 써있는 모습에 마음 한 편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역사의 정방향으로 수레바퀴를 굴리다 스러진 영혼들에게 묵념을 한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그것으로 4월의 산행을 마감했다.

산행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앞에 쌓여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부담과 게을러지는 유혹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막상 다 잊고 산행을 하고 나면 같이 산을 오르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소득을 얻곤 한다.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생명을 길러내는 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했던 산행은 이번에도 커다란 보람을 안겨주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지나왔던 산길을 돌아보면서 노신(魯迅)의 '고향' 중에 나온 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역사강좌는 중독이었다

김희정 양심수 후원회 회원

5월 11일 일요일 아침(?) 11시에 눈을 떴다. 지난주 연휴동안 해남에 다녀오고, 그 후유증이 아직 다 안 가셔서 인지, 한 주 내내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번 주말에는 강릉에 가야하는 일정을 포기한 중이었다.

그러니 이 일요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고민하던 중에 핸드폰 음성 메시지가 생각났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역사강좌가 이번 일요일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여름에 가본 것이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벌써…?매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주말마다 일이 생겨 가보지 못한 것이 몇 개월이었던가. '드디어 역사강좌를 가보겠구나' 하는 생각과, 하도 많이 빠져서 이젠 낯을 들고 가기가 면목이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잠시 했다.

그래도 역시 푸근한 분위기의 회원들과 한상권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발걸음이 자연스레 낙성대로 향했다. (역시 중독은 무서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까? 혹시 나처럼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잠시, 낙성대 만남의 집 문간은 신발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역시, 역사강좌의 명성과 한상권 교수님의 매력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부성 발언 ^^)

이번 강좌는 한국전쟁에 대한 것으로, 비디오 시청과 이어지는 교수님의 핵심을 찝는 설명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이 되었다.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었던 반공(분단)교육, 그 핵심에 있던 것이 바로 6·25로 불리었던 한국 전쟁이었으니 그것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시대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듯이, 이제까지 한국전쟁에 대해 쓰여진 것들이 한국전쟁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제2전선에서 벌어진 부역자 처벌문제, 양민학살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도 한국전쟁 따로, 양민학살 문제 따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동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좌를 들으면서, 자연스레 이라크 전쟁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 당시 한국전쟁을 바라보았겠지. 그들은 우리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을까?

이런 공상을 뒤로하고, 강좌보다 더 좋은(죄송합다~~) 뒤풀이가 이어졌다.

뒤풀이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만남의 집 안뜰에서 이뤄졌다.

사실, 나의 오랜 공백 때문에 알던 얼굴보다 낯선 얼굴들이 더 많아서 잠시 서먹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수더분한 얼굴과 친밀감 공격(!)으로 그런 것은 금세 눈 녹듯 사라졌다.

송창학(기획간사)님이 주장하였듯이, 오월의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주방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로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앞에 두고 있으니 가든파티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단지, 막걸리 많이 사온 죄로 간사들의 잔소리를 뒤풀이 내내 들어야만 했던 재영 선배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할 뿐… (그 막걸리 처리하느라고 '뒷처리반'이라 불리운 사람들이 무척 애를 썼다는 뒷소문이 있다.)

그 뒤풀이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듯이, 빛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 뒤에서 묵묵히 땀흘려 준비한 사람의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되새겨본다.

역사강좌는 그런 땀들로 채워져 나를 중독되게 하는 게 아닐까?

알립니다

6월 산행

오랜만에 수락산으로
6월 산행을 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언　제 : 6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수락산
모이는 곳 : 당고개역 매표소 앞
갖출 것 :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 지하철 4호선
문　의 : 신현익(017-233-2800), 888-4470

한상권교수님의 현대사 강좌

가까운 과거사를 앎으로서
오늘을 알고,
미래를 참되게 개척하고자 합니다.

일　시 : 6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⑧번출구)
문　의 : 송창학(016-235-3726), 888-4470

북미간 핵공방의 진실은 무엇인가!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겸 통일뉴스 고문은 민중의소리 기자와 가진 북핵문제 관련 대담을 통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은 우리민족에 대한 적대"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가진 모순점들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대담 내용을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현재 북의 핵보유 시인으로 북핵문제는 북미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4월 23일 부터 25일 까지 열린 베이징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적대적 북미관계가 아닌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에 대해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적대적 관계로 일관해 온 북미관계가 이번 베이징회담을 통해 해소되고 발전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통일문제 전문가 김남식 선생을 만나 보았다. 나뭇잎이 제법 그늘을 만들 정도로 푸르름을 더해 가는 봄날 해질녘에 찻집에서 만났다.

김남식 선생은 기자와 마주 앉자마자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북핵문제는 말이죠. 이북의 핵무기 소유가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대뜸 인터뷰 주제 속으로 쑥 밀고 들어갔다. 김남식 선생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음은 김남식 선생과의 일문일답이다

북미간의 핵공방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 과연 미국이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때문에 북을 위협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 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서만 핵을 문제화 하는가. 이라크 침략도 미국이 정말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다. 북미간의 적대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야 북미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명분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북미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었는데 그러한 냉전적 요소들이 북미간의 적대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압축된 것이다.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해 억지, 봉쇄보다는 개입, 확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른바 '연착륙', '평화적 이행'이라는 것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군사적 압력도 강화시키면서 '억지와 개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남한만이 아닌 북한에 까지 확장시키려 한 것이다.

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의도는 클린턴정부나 부시정부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시대의 '연착륙', '평화적 이행' 등의 정책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억지력을 중심에 두는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출발한 부시의 대북정책은 2001년 6월에 발표된 첫째, 핵사찰 선행, 둘째, 미사일 개발 포기 셋째,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등 북한에 대한 사실상 무장 해제를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의 핵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북한을 종속, 지배하려는 대북 적대시정책을 은폐하며, 또한 그를 합리화 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어내려는 속셈인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핵문제의 기초학습이라 할 수 있는 북미문제의 본질에 대해 김남식 선생의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본격적으로 풀어 보기로 하였다.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지난해 10월 켈리특사 방북 이후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켈리특사가 제기한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이라는 것도 북에 대한 핵 개발 의혹으로 북한을 몰아부쳐 다른 목적을 추구 하려 한 것이다. 당시 남북철도가 연결되어 남북간 내왕이 활발해 질 것이 확실시 되고, 9월 고이즈미 방북으로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막아 보려는 속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활성화 되고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동북아의 정세는 급변하게 돼 있다. 한·미·일 동맹관계도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다자회담 주장의 의도는 북핵문제를 처음에는 미국 단독으로 처리해보려 했으나 안되고, 유엔에 상정시켜 해보려 했으나 안되고, 그러다가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라고 하면서 결국 북핵문제를 국제화하여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간사한 의도이다.

북한은 이번 3자회담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태도만 변한다면 대화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도 결국 다자회담을 종전의 반대입장과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북한은 회담이 열리기 전 중국은 장소국이며 사회를 보는 역할이라고 했다.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회담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실질적인 회담은 23일 첫날 회의였다. 북한은 첫날 회의의 중간, 휴식시간에 미국 대표와 접촉기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북측은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핵무기 보유를 공개 할지, 이전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미 93년에도 똑같은 시인을 한 바 있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마쳤다."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회담은 북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회담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북경회담은 3자회담이 아닌 북미 양자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다자회담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북미간 적대정책이 해결되면 다자회담은 가능하다.

북한의 핵 보유 시인 어떻게 봐야 하나.

세 가지로 봐야 한다. 북은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부시행정부가 악의 축 발언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니까 이미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것, 셋째는 이제 부터 실제로 핵개발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에 있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정책이었다. 이번에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이유는 ?

그것은 유엔의 결정도 무시하고 국가간에 지켜야 할

도리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략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그에 상응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말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약까지 깨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NCND가 이라크침략 전까지의 입장이었지만 이라크전 이후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남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북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북에서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북미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쪽이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맞대결하는 본질적 이유는 자주권 수호다. 그것은 민족을 지키자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자주권 수호로 봐야 한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자주권 수호는 확실한가.

그렇다.

오히려 남북간에 긴장, 적대관계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교류 등등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자꾸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도 함부로 못한다. 우리 조상들은 자주권을 위해 생명까지 바쳤다. 장구한 역사를 보면 목숨을 바칠때 비로소 민족의 자주권은 지켜졌다. 고구려의 수나라, 당나라침입때도 그랬고, 고려시기 여진과 거란의 침입때도 그랬고, 조선의 임진왜란때도 우리 선조들이 외적의 침략에 맞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은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내놓은 '새롭고 대담한 방도' 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추측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와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간 북미간에 전개된 해결책에 관한 서로의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북한의 주장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북한이 무조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북핵문제는 미국만이 아닌 주변 관련국들의 공동관심사이므로 다자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자주권 보장, 불가침확약,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한마디로 확실한 체제보장의 전제하에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간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공약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북경회담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 예컨데 '체제보장' 과 미국이 우려하는 '핵개발 포기' 라는 두 가지 현안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설정하여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후 미국의 대응은 어떠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경우 이는 남북관계의 높은 발전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나아가서 북일수교회담이 촉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 예컨데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틀의 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기존 군사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보다 억지논리에 따른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라크 침략을 강행한 미국이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한다면 그의 파렴치성을 다

시 한번 노출시키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조소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포괄적 협상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서 핵개발을 서두르고 핵보유국임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할때 우리 당국과 통일운동단체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알 카에다'에 대한 테러지원의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자기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거리낌 없이 조작해 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도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북한에 대해서도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생화학 무기 개발 등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보들을 조작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남북의 민족대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문제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끝으로 새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세와의 공조는 어불성설이며 민족공조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남식 선생의 열띤 통일이야기는 두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계속되어 밤이 이슥해져서야 마무리되었다. 선생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삶에 지칠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외우는 류준도 시인의 추모시 한 편을 소개하며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미국은 지금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오랜 공방전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의 대담한 제안은 미국에게도 유익한 제안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이 적대정책만 포기해 준다면 언제든 핵개발을 포기 할 것이며 미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핵사찰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항상 우려해 온 점을 과감하게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이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신중히 검토하고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이제 북핵문제를 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국의 대담한 결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문숙 기자

[출처 : '민중의소리' 2003년 5월 4일자]

정부는 한총련 수배 해제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총련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
유영업, 이산라, 송용한, 송승훈, 이현주, 박재산, 임상우

입춘(立春)을 맞이해서 정치 수배 해제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이번 봄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연세대학교 3층에 마련한 사무실 벽 한쪽에 "자유를 애타게 그리며 정치 수배 해제의 봄을 희망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겨울의 끝머리에서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문구였다. 이번에 맞이할 봄은 정치 수배 해제를 맞이하는 봄이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정치 수배 해제 모임은 시작되었다.

가능하다고 봤다. 그리고 자신 있었다. 수배자가 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겨오며 6년 7년을 버텨왔다. 이제 이런 부당한 현실과 부조리가 교정되어야 할 때라고 확신했다. 게다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학생회장으로 활동할 삼사백 명의 학생들이 수배자가 되느냐 합법활동이 보장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 해결이 늦추어져 왔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시민사회도 한해한해가 다르게 성숙해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혁열망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가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와 한총련 수배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확신하였다.

사무실을 개소하자마자 언론 매체들이 기대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치 수배자들이 공개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고 얼굴도 드러내고 실명도 써가며 정치 수배 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언론 매체들에게 참신하게 다가온 듯 했다. 처음으로 수배자 총회와 온라인 모임을 거치면서 전국의 수배자의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 모임에서 수배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제기가 있었고 정치 수배 해제 모임에서는 수배자 건강문제를 우리 사회에 인권문제로 알리자고 결정하였다.

정치 수배 해제 모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였다. 정치 수배 해제 모임에 거는 전국의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기대감의 반영이었다. 처음 유영업, 이현주, 송승훈, 송용한으로 시작하였던 이 모임에 이산라군이 합류하였고 3월 말에는 임상우가, 4월달에는 박재산이 우리 동우리에 들어왔다.

목포, 울산, 부산, 충청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의기투합을 이루었고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사업을 펼쳐 나갔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정치 수배 생활을 해오며 겪었던 동질의 고통이 동변상련이 되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정치 수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의기투합을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취해나갔다. 우리는 먼저 정치 수배자의 사연이 국민과 네티즌에게 널리 알려지면 국민과 네티즌의 지원과 격려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인터넷 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1월 달에 만든 다음 카페 "보이지 않는 창살"을 주기적으로 새 단장을 해 갔고 카페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을 모은 것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새봄"이었다. "정치 수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타이틀을 단 새봄 방송은 수배자들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한다는 신기함과 〈인터넷 라디오〉라는 소재의 참신함, 그리고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정치 수배자의 사연이 접할 수 있다는 것과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만

나는 정치 수배자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놀라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 수배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봄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아껴주게 되었고 애청자도 생기게 되었다. 부산의 한 청취자는 일 삼아 서울까지 올라와서 방송현장을 찾아주는 일도 있었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신입생 신분으로 사무실을 방문해주기도 하였다.

사진 제공 : 통일뉴스 왕준영 기자

앞서 온라인 모임에서 한 수배자가 제기한 건강 검진 사업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한총련 정치 수배자 공개 건강 검진 사업을 기획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 사업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나서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소속의 의료진의 도움이 없었으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지면을 빌어 보건 의료 단체 연합에 소속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두 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건강 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는 진료를 받은 학생과 그리고 검진을 한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도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대부분의 수배 학생들이 생활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함 때문에 디스크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긴장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하여 온갖 속병에 정신적 질병까지 안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진에 참가한 의료진들은 검진 결과를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며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배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3월 17일 업무보고 시간에 "한총련 수배 학생들이 건강 검진 받는 것을 뉴스로 보았다"면서 한총련 수배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총련 수배 학생과 그 가족들이 생이별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배자 가족 모임과 한총련 수배 학생과 그 가족과의 상봉 모임을 치러내었다. 3월 14일 전국 정치 수배자 가족 첫 모임이 열렸고 한총련 수배 가족 대표단이 민주당과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가족 대표단은 한총련 수배 해제를 '화끈하게 풀자'라는 답변을 들었고 큰 기대를 안고 첫 가족 상봉모임은 다음을 기약하며 마쳤다.

얼마 후에 4월 사면계획이 법무를 통해 발표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한총련 수배자와 그 가족과의 만남

이라는 상봉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모임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표현대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총련 수배 학생들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 사회 원로 인사들과 목사님, 스님, 신부님, 수녀님도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취재하던 언론사의 기자들도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한총련 정치 수배 해제 모임의 공개적이고 전격적인 활동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두 차례 가족 모임과 상봉모임으로 한총련 수배 해제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자 이른바 수구 언론들과 수구 정치 집단의 반발도 거세졌다. 인도적인 차원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배 해제 문제를 보수적인 법리를 동원하여 수배 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나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결국 사회 개혁 세력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변화된 시대흐름에 동떨어진 주장에 대응하면서 수배 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시민 사회가 함께 한총련 수배 해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이 하나씩 마련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4월 8일에는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이 프레스회관에 모여 한총련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형규 민주화 우농기념사업회 이사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각계 인사 550여명 참석하여 한총련 수배 해제 문제가 시민사회의 일반 여론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 수배문제 해결, 합법화 관련 내용으로 박환양(경기대 박제민 군 아버님), 이승은(연세대 신승헌 군 어머님), 강위원(한총련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집행국장), 이덕우(변호사) 등 4인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수배자들에 대한 일괄불기소, 한총련 합법화 요구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제 청와대도 정치 수배 해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법무부 강금실 장관과도 전격적으로 면담을 하였다. 남은 것은 발표뿐이다. 그런데 수배 학생들과 가족들이 애간장이 녹으면서까지 기다리는데도 정부측으로 진전되는 내용이 들려오지 않았다. 도대체 문재인 민정수석이 가족들을 만나서 한 약속은 뭐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총련 수배 문제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며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한총련 수배 학생의 가족들을 왜 만나주었단 말인가? 사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총련 수배 학생과 그 가족들은 사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면시기에 맞추어서 수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연일 민원서류를 접수시켰다. 검찰과 경찰측의 반발은 목격되는데 정부측의 구체적인 이후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가 마르고 속이 시커멓게 타갔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국 정치 수배자 가족 상경을 준비하였다.

4월 24일 가족들이 일제히 연세대로 상경을 하였고 가족들과 사회 원로 인사들은 사면과 더불어 수배 해제 문제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총련 수배 해제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수배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방문하셨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을 앞세워 수배 학생 어머니 아버지들의 앞길을 막아 세웠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울분을 못 이기시며 한나라당을 지키고 서 있는 경찰 방패 앞에서 속울음을 삼키신 채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하셨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던 전투 경찰들도 마지못해 어머니, 아버지를 막고 서 있긴 했지만 숙연한 자세로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그 와중에 눈물을 떨구고야 만 한 전투 경찰대원의 모습도 목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접수시켰다.

바로 그 날로 연세대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가족분들은 농성을 돌입하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4월 26일 문재인 민정수석과 11기 한총련 신임 의장과 면담이 있었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빠른 시일 안에 정치 수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4월 27일은 전대협 동우회 등 학생운동 선배 모임에서 한총련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 송영길, 임종석, 이인영, 오영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4월 29일은 국제 사면 위원회(엠네스티)에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농성장을 방문, 한총련 수배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0일 경기대 박제민 학생이 학생식당 앞에서 연행이 되었다. 수배 해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총련에 수배 학생에 대한 연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 그것도 박제민 학생은 고도 근시에 다리 골절 등으로 지난 건강 검진에서도 건강 문제가 심각한 학생으로 진단 받은 학생이었다. 한총련 정치 수배로 인한 인권 침해의 상징적인 사례로 박제민 학생 사례가 사회에 많이 알려졌는데 박제민 학생을 연행한 것은 경찰의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었다.

사진 제공 : 통일뉴스 왕준영기자

부모님들은 장안동 대공분실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시면서 수배학생을 연행해간 보안 수사대 등 경찰측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박제민 학생뿐만 아니라 수배 학생이었던 전남대 학생 두명이 연행되는 등 7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한총련 수배 해제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부모님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는 수배 해제한다고 해놓고서 뒤에서는 잡아가는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은 5월 1일 100분 토론회에 출연하여 한총련 신임 의장과 조우를 하고 한총련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부모님들은 급기야 더 큰 결단과 각오를 하시게 되었고 5월 6일 단식투쟁을 돌입하셨다. 그리고 박제민 학생 어머님은 삭발까지 하셨다.

부모님들의 단식과 삭발 소식은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연일 천막 농성장에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격려 방문을 와주었고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에는 단식과 삭발 투쟁 속에 어버이날을 맞으시는 부모님을 격려하러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였다. 특히 수배 학생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학생들의 명단마다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광경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나서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다들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부모님께 단식을 중단하시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의 단식과 삭발을 극구 만류해왔다. 부모님들의 의지를 어쩌지 못하고 3일 동안 단식을 하셨지만 3일이 지나자 수배 자식 걱정에 온갖 속병이 드신 부모님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눈에 확연히 보였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반드시 단식을 중단시켜드려야 한다고 우리는 마음을 다잡았고 부모님께 설득을 드렸다. 다행히 부모님은 어버이날 저녁부터 단식을 푸셨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투쟁은 더 적극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11일부터 부모님들은 매일 법무부로 가서 1인 시위와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계신다.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나 보다.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학생처장 교수님들께서 12일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셨고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수배 학생들에 대한 수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 민주적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 교육적 차원으로 교수님들까지 나서시면서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한 노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한총련 수배 학생들은 한총련 수배자와 가족의 인권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사회에 알려 내왔다. 정부 측의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실제로 청와대, 법무부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왔다.

11기 신임 의장 정재욱 총학생회장은 합법 한총련을 위해 11기 한총련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한총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학생운동 대표체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많은 언론에서 근 6개월 동안 한총련 수배 문제의 인권침해와 부당성, 그리고 수배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다. 보수언론이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조차 한총련 수배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십분 이해한다고 할 정도이다. 이 정도면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되었다고 본다.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한총련 수배 학생과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은 제 때에 해결되어야 한다. 시간을 미적미적 미루는 것은 한총련 수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김형주 의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13일 있었다.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지난 과정의 국민적 논의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보수 · 냉전적인 시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법원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고 판례를 뒤엎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판례를 뒤집는 판사는 법조계에서 영영 떠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그냥 도는 풍문이 아니다.

법적 잣대로 판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 수배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알렸던 지난 시간들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을 위한 각계의 토론, 국민적인 관심과 해결기대의 요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제 다시 수구 언론과 한총련 수배 해제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수구적인 정치 집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법리적인 문제 이전에 한총련 수배 문제를 인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2월에 정치 수배 해제 모임을 결성하고 나서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치 수배 해제란 무엇인가? 실정법을 고치기 힘든 조건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결단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 수배 해제라는 조치가 있는 것이다.

수배 해제는 200명에 가까운 수배학생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다시 3백 4백 명의 수배학생을 양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거듭 밝히건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더 시기를 끌지 말고 과감하게 5월 대학생 축전이 있기 전에 한총련 수배 해제를 단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총련 출범식이 끝나고 또다시 학생회장에 대한 수배 조치가 내려질 것이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던 한총련 수배문제는 여러 복잡한 상황에 얽혀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 백 명의 정치 수배 학생이 또 양산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양심수가 생길 것이며 인권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포부와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날을 애태우며 기다려온 모든 정치수배자들과 가족들은 새 정부의 단호한 정치적 결단을 기대한다.

불의와 모순에 맞서 싸워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 열려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총회가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양심수후원회원과 민가협 어머님들, 유가협 어른들과 통일광장, 범민련, 전국연합, 4월혁명회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행사로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해제 관련 영상('민중의 소리' 제작)을 상영했고, 이기욱 부회장님의 사회로 개회선언을 하였습니다. 민중의례 후 여는 말씀으로 박용길 장로님, 오신 분 소개를 권오헌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지도위원이신 김규철 총준위원장님께서 해주셨고, 14차년도 사업보고를 권오헌 회장님께서, 14차년도 감사보고를 노중선 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차년도 후원회 사업에 소중하게 기여하신 모범회원들에 대한 지도위원님들의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후원회를 항상 지도해주신 김승훈 신부님, 장기수 김수룡 선생님, 언제나 회비를 소중하게 내주신 신미순님과 김혜식님, 류희영님, 산행에 늘 함께 하신 신현익님, 회원교육에 앞장서주신 한상권 교수님과 시사모임팀, 그동안 간사로 수고한 고광희님과 이창희님 등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김승훈 신부님과 류희영님께서는 사정으로 못나오셨습니다.

또한 사무국과 소위원회를 세부화한 회칙 개정안을 김호현 운영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이를 회원 만장일치의 박수로 통과시키고, 새 일꾼 선출에 대해 회원들의 뜻으로 총회준비위원회의 기존 임원 유임안을 역시 만장일치의 박수로 승인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의견과 동의로 감사 선출도 기존의 감사님들을 유임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도위원님들과 회장단과 운영위원, 감사, 간사, 기획위원 등 새로 뽑힌 일꾼들이 모두 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이어 한상권 운영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15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 15차를 맞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대한 격려말씀을 출소장기구금양심수 고성화 선생님,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님, 라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 지도위원 홍근수 목사님 순으로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축가를 꽃다지가 힘차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2차 송환'을 촉구하는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등 전국 양심수후원회 공동명의의 특별결의문을 이일규 회원이, 총회결의문을 이용준 회원이 낭독하고, 참가한 회원 모두의 다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부를 마친 후 2부는 기독교회관 지하식당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출된 새 일꾼

[지도위원]

박용길 민화협 상임공동대표
김승훈 신부님
홍근수 자통협 상임공동대표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의장
김영옥 통일연대 조직강화 특별위원장

[회장]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

[부회장]

김지영 김지영 내과의원 원장
이기욱 민변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대표

[운영위원]

김호현 '창 미디어' 대표
모성룡 홍제 현대유치원 원장
송경용 성공회 신부, 나눔의 집 원장
이정규 가정주부
이정태 민족무예 경당 사범
탁무권 노원문고 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감사]

노중선 4월 혁명회 공동대표
진 관 스님, 불교 인권위원장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간사]

송창학 기획간사
김미성 간사

모범회원 감사패 선정이유

김승훈 신부님

오랫동안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해오셨던 신부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 창립 때부터 지도위원으로 함께 하시며 공안탄압의 어려운 시기 후원사업의 지도와 보호자로 애써 주셨고, 특히 장기구금 양심수를 비롯한 자주 · 민주 ·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양심수의 석방에 큰 힘이 되어 주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드립니다.

김수룡 선생님

장기구금양심수로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오랜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던 선생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의 후원대상자이시면서도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양심수를 위해 한결같은 큰 성원을 해주셨고 후원회의 모든 행사에 함께 하시며 '후원회 소식' 지에 좋은 시와 글을 보내주시는 등 후원회 활동에 남다른 헌신을 하셨기에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드립니다.

한상권 교수님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계신 선생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 초창기부터 회원으로 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큰 성원을 해주셨고, 특히 2003년 양심수후원회 회원교육사업인 역사강좌 '한국 근 · 현대사' 강의에 정성을 다 해주심으로 회원들의 역사인식과 교양에 큰 도움을 주셨고, 회원 늘리기와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신현익 회원님

회원님께서는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큰 성원을 하셨고, 특히 양심수후원회 산행모임을 주관하면서 먼 거리에서 자영사업을 하면서도 후원회 산행을 비롯한 모든 회원활동에 남다른 헌신을 하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류희영 회원님, 김혜식 선생님

회원께서는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 · 민주 · 통일, 그리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후원회 초창기부터 한결같이 큰 성원을 해주셨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신미순 회원님

회원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 창립회원으로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 · 민주 · 통일, 그리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한결같은 성원을 해주시어 남의 모범이 되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드립니다.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위 모임은 양심수후원회의 회원교육과 사사문제토론 등을 주관해오면서 특히 2002년부터 있는 회원교육사업인 역사강좌를 열어 회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교양을 높이고 회원 늘리기와 활성화하는데 큰 공헌이 있었기에 양심수후원회 제 15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창희 회원님

회원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간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심수 석방과 후원사업 업무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한총련 합법화 · 정치수배해제 등 연대사업을 활발히 하면서 양심수후원회의 사업영역과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기에 양심수후원회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고광희 회원님

회원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 사무국간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심수 석방과 후원사업 업무에 헌신했으며특히, 회원사업에 남다른 헌신으로 회원 늘리기에서 모범을 보였기에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의 새 역사를 실현하자!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쁨에서 1차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송환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많은 봄바람을 몰고 왔다. 오늘 해마다 남북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발걸음은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화해와 통일의 새 역사를 안겨줄 것이다.

민족 화해와 통일의 봄바람에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의 조속한 실현도 실려야 한다. 하지만. 재작년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내세운 미국이 한반도에 차가운 냉전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고 있다. 북 핵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대북중유공급 등 각종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중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거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 70세가 넘는 고령의 송환희망자들 가운데는 김태수선생님 등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며, 정순덕 선생님 등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오랜 감옥생활의 고통도, 잔인한 전향공작에 대한 피맺힌 한도, 병마와의 시달림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헤어진 가족과의 간절한 상봉의사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의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어려운 시절에도 장기수선생님을 가족처럼 돌보며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의 거대한 꿈을 실현하였다. 이제 다시 한번 더 통일의 봄바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닌 힘과 지혜를 모아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 오직 우리의 노력에서만이 꿈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안고 수십년을 감옥 살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송환희망 비전향장기수들이 신념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26일

광주지역 양심수후원회
대구지역 양심수후원회
대전지역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심후원회 깃발아래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을 이루어내자!

15년 전 장기구금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모였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오늘 또 다시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

6 · 15 남북공동선언시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었으며 실효성도 없는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그 독기를 내뿜고 있다. 바로 범민련 · 한총련 이적규정과 한청 탄압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과 한청 간부의 연행 · 구속 ·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오늘도 180여 정치수배자들이 많게는 7년까지 정상적인 교육과 가정 ·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이상 질환을 갖고 있으며 불치의 병을 앓는 학생도 있음이 보건의료단체의 공개검진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공안대상이 되어 구속 · 수배되고 가압류까지 당하고 있다.

민주화시대, 문명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처럼 기본권이 유린되는 야만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 모든 불의와 모순에 맞서 고난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지난 해 우리는 미군 장갑차의 두 어린 여중생 살인만행을 보았다. 저들끼리 재판놀음을 하고 무죄평결하는 것을 보았다. 불평등한 한 · 미 SOFA가 민족자주권과 심각한 주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시청앞 10만 집회와 촛불시위를 통해서 주권회복을 외쳤다. 외세와 분단시대의 인권운동은 바로 민족자주권이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제 개혁과 통합을 내세운 참여정부가 들어섰다. 권위주의시대의 모든 억압장치와 폭압기구를 없애야 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공안기구는 폐쇄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가시적 조치로 양심수특별사면을 지켜보고 있다. 1,400여명의 사면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양심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는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전면해제가 아닌 양심수사면은 이제까지 말해왔던 적극적 검토발언의 배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그리고 모든 탄압에 맞서 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범민련 ·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해외동포의 조건없는 조국방문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이루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6 · 15공동선언이행과 패권주의 전쟁책동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26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또 다른 강철의 존재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욕심 많은 누군가들이 여전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탓에 친척 분들이 모두 경북 경산 분들 이어서인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적잖이 존재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역사적 사실여부가 아닌 사람들의 인식차이에서 오는 평행선과 같은 긴장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여동생 결혼식에 모이신 친척 분들께서 저의 장래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서 역사나 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친척 분들에게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을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이 어리실 적에 기억하듯이 해방 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의 사주가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신 그 분들의 영혼을 역사 앞에 위로라도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께서 경산 코발트광산사건에 대해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익으로 몰려 죽었던 사건'으로 기억하시며 금호강 물이 한동안 핏물로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하기에, 아버지는 진보를 비극과 혼란으로 기억하시며 그런 일을 자식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덕분인지 지금은 가족과 친척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랑스런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안경찰이나 검찰측 사람들도 자신의 후안무치한 죄를 대신 책임져주는 우리 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십년을 감옥에 계시면서도 조국과 민족 앞에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들 앞에서 조금이나마 함께 서고자 했던 선생님들을 후원하고, 그 뒤를 이어 오늘의 현실을 신념과 양심을 개척하는 양심수들을 지지하는 단체가 바로 제가 잠시나마 일했던 단체이고, 앞으로도 회원으로 있을 단체이기에 그 동안 함께 했던 인연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의 만 2년 반 생활을 마치고 느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다른 강철의 존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묻히기 쉬운 양심을 은은하게 키워 가는 그런 부드러운 강철 말입니다.

꾸준히 소중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 분들, 바쁜 생활에도 봉사의 시간을 내주시는 회원 분들을 보면서 학생운동을 하며 20대의 대부분을 보낸 저는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고민하면서 배운 것이 많으며 희망도 더 크게 가졌습니다. 이러 분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진보로 향하는 기운은 절대 퇴색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소중한 것을 많이 배우고 별로 한 일도 없이 간사에서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배움, 위대한 역사와 영혼들에 대한 기억과 실천을 안고 앞으로 회원으로서 다른 사회의 장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회원으로서 고마움과 긍지를 갖고 부끄럽지 않게 어느 곳에도 당당히 서겠습니다.

푸르른 하늘을 보며

"진지하게 북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런일이있었어요

2003년 4월

01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평화통일시민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라크파병에 관한 국제법, 국내법상 문제점과 대책'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이장희교수 등이 발제하고 김원웅, 송영길, 서상섭, 주종환, 류병준, 박찬운 등 토론.

- 경실련통일협회 등 2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열다. 1부 식전행사로 반전공연 및 퍼포먼스, 2부 반전평화대회를 진행.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최병모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경찰이 제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아무개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경비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서울경찰청 기동대 나아무개경감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서초동 이기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칙개정소위 모임을 가짐. 이기욱, 김호현, 송창학, 이창희
- 회원관리팀 총회 연락준비 작업을 위한 모임을 인사동에서 가짐. 노혁, 변의숙, 김숙희, 김미성

02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라크 침략전쟁중단 국회파병 통과저지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 및 인간띠 잇기' 하루종일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공동으로 진행되다.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재적의원 270명중 256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179, 반대68, 기권9표로 가결시키다.
- 기획위원 모임을 이문학회에 가짐. 노혁, 이승미, 이창희, 송창학, 변의숙

03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40여명으로 구성한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열다. 평화의례, 참석자소개, 경과보고에 이어 정철범 성공회관구장, 이광우 전남대명예교수, 도정일 교수 등 인사말, 리카르도나바로(지구의 벗 국제본부의장)의장 연대사, 정현백 교수, 임종인 변호사, 박순성 교수, 정광훈 전국연합공동의장, 조희연 교수, 임명진 목사, 송학선, 유덕상 민주노총위원장권한대행 등 각계인사토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섭시다.' 채택하다. 마치고 미대사관 앞까지 거리 행진.

- 민가협 466회 목요집회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있었습니다. 조순덕 상임의장-여는말, 임기란 전상임의장-반전평화비상시민기자회견문 낭독,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이라크전쟁반대! 파병반대!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발언, 하영옥님 어머니, 최원석님 어머니- 파병반대와 조속한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촉구발언, 이인순 천주교여성공동체 - 전쟁과 파병반대 발언
-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이 1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 하다. 민주노총성원들과 사회단체성원 등 300여명이 모여 출소환영식을 열다.
- 안국동 참여연대강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파업결정 취소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을 냈다고 밝힘.
- 강금실 법무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총련수배자 가운데 핵심관계자가 아닐 경우 자수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에 대체할 새로운 법세계가 필요하며 검찰의 공안기능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한다.' 고 밝힘.

04 종묘공원에서 한총련과 청년학생 반전위원회 공동주최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중단 한국군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위협반대 대학생행동의 날' 집회 열다.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향미 성신여대총학생회장, 김바울 한국기독학생연합회장, 정병호 성공회대총학생회장, 최종훈 서울대 반전평화위원회, 이영훈 한총련 11기 임시의장직무대행 등이 연설.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하고 정리집회를 열다.

- 연세대동문회관에서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KNCC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한총련수배자와 그 가족들의 만남인 '새봄, 첫 만남' 행사진행. 가족들 60여명 각계사회단체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강위원 범사회인대책위집행국장 사회로 오신분 소개, 함세웅신부님 인사말, 한총련관련 영상(김도균), 송용한어머니- 홍동자님 편지낭독이 있었고 이어 한총련 수배학생 모두 입장 뜨거운 박수 받음. 무대에서 인사 이어 노래공연 이정열외 시낭송 송용한, 김세룡 학

생의 아버님영전에 드리는글(편지), 수배자와 가족들의 합창(처음의 마음), 박지영(7세)어린이의 '삼촌 빨리 집에와서 나랑 놀아요', 수배학생 임상우, 김정숙, 김현정 가족들과 노래(만남), 하영옥어머님의 편지(대통령께 드리는 글), 지원스님 인사말, 청년한의사 최문석 회장 인사말, 수배자와 가족들의 만남 시간 갖다. 이어 수배학생들도 장기원 기념관으로 이동 토론을 하고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할 일등 논의 (권오헌설명) 하다.

- 경남대 정치수배자모임 등 교정에서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합법화 소배경학우 공개 교육실습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소배경(경남대 2002년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학생은 모교인 거창고등학교에 공개 교생실습 하러 가다. 이때 경찰당국이 소배경 학생을 연행하려한다는 보고를 받고(권오헌)경찰청보안과에 전화 연행방침에 강력 항의하다. 교생실습기간 연행하지 않기로 하다.

05 광화문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관 131차 촛불시위 열림. 배우 문소리, 한국이라크반전팀으로 요르단 다녀온 임영신씨 등 발표시간 박기범, 유은하씨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발하기 위해 이라크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만행 경기북부대책위는 두 여중생의 추모비 있는 곳에서 SOFA개정 이라크 전쟁중단 파병저지를 위한 자주의 나무, 평화의 나무 심기 운동 벌이다.

06 전남광양 백운산 한재에서 전쟁시기 산화해간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열사 추모제를 지내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남원, 전주, 충남, 대전, 서울지역 등에서 온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진민씨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정운창선생의 추도문낭독, 부산지역 최상원선생, 광주지역 임동규선생, 충남지역 허찬형선생, 서울지역 권오헌 등으로 추도사 이어 지역별 분향재배로 모두 마침. 광주지역에서 준비해온 점심식사 이보다 앞서 서울에서 5일에 떠나와 백운산식당에서 잠을 잔 일행은 6일 이른 아침 백운산 산행을 하며 격전지 답사. 해발 1,218M 정상을 올랐다가 한재로 내려와 추모제 지냈음. 양심수후원회 김미성간사 함께 하다.

-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청년학생연대는 대학로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벌이다. 사진전시, 스티커 붙이기, 반전평화 기금마련 모금운동, 북 · 미 불가침조약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벌임.
-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80여명은 국회 앞에서 '단속추방 중단 합법화 쟁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직업선택과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신종노예제라고 주장하다.
-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교도소 도보순례단 '고난의 행진' 청주에 도착하여 집회를 열다.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 양정열 위원장등 환영사 최진수 단장 결의 발언 등이 있었고 충남 천안 노동자 박정제씨 면회를 하다.

07 민주화운동정신계승 등 국민연대 대표들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 새로 취임한 변정수 위원장방문 취임을 축하하고 간담회를 갖다. 명예회복법개정문제, 국가보안법관련심의지연문제, 보상기존의 모순 점, 보상심의위원회의 비상임 등 문제점 지적하고 심의결과의 정보공개 문제 등 건의하다. 오종렬, 강민조, 남상헌, 권오헌상임공동대표와 백석률 국가보안법특위장, 박영희사무국장 등 함께.

- 연세대 푸른샘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원진녹색병원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 공동으로 한총련 정치수배자 공개검진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최인순 보건의료노조 집행위원장 사회로 의학적 검진결과(김정법 인의협공동대표), 한의학적검진결과(한창호 청년한의사회정책국장), 치의학적 검진결과(정달현 건치사업부장)를 발표하고 윤혜경 건약조직부장의 취지경과 보고, 인의협 서울대 보건대교수의 보건의료 단체의 의견별표가 있었음. 이 같은 발표에서 들어 난 수배학생들의 각종질환에 대한 유영업 수배자모임 대표의 의견, 부산대 윤영조 학생은 심근염사례 발표도 있었음.
- 성신여대 교정에서 권희정열사 7주기 추모문화제가 유족들과 유가협 추모단체회원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일꾼들 성신여대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추모문화제를 마치고 학생회관앞 정원에 세워진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음. 권오헌 후원회장과 성신여대 총학생회장등이 제막 축하 말하다.

08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에 즈음한 사회원로 각계인사 기자회견'을 열다. 각계원

로와 사회인사 557명 이름으로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황인성씨 사회로 양심수정치수배자 영상보고 참가자 자기소개 함세웅, 박형규목사의 인사말 이어 각계를 대표하여 김정현 문화연대상임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송영길의원,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 유덕상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이상훈 한총련조통위원장 등 순으로 석방촉구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현백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홍익대학생회관에서 '새로운 시대 한총련운동의 방향을 위한 사회단체 대표와의 좌담회'를 한총련 11기 의장후보(정재욱, 김상민)가 함께한 가운데 한총련 집행부주최로 열림. 두 후보자가 앞으로 한총련을 이끌 지향성 등을 말하고 사회단체 대표들 의견 있었음. 이날 좌담회에는 범민련 라창수의장외 여러분 전국연합 오종렬, 노수희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통일광장 권낙기대표, 실천연대 윤한탁, 권오창대표, 민변 김승교 변호사,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대표,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 전국연합집행위원장 한충목 등이 함께 했음.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들어간다고 발표.

09 서울지법의 정부지원 이주헌 판사는 지난해 11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윤아무개씨등 18명에게 100~200만원씩 벌금 부과하다. 이들은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미군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재판 놀음에 항의 미군기지영내에 들어가 시위를 했었음.

10 민가협 467회 목요집회

- 양심수 후원회 제14차 년도사업 및 회계감사(2002.12~2003.3월)받다. (노중선 감사님)
-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다. 14차 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심의. 15차 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모범회원 선정, 회칙개정안 소위에 일임. 총회보고서 제작안, 총회순서 등 점검했음. 박용길, 김규철, 김영옥, 지도위원과 김지영, 한상권, 송경용, 김호현, 탁무권, 권오헌등 운영위와 이창희, 송창학, 노혁, 김미성 총준위원 함께.

11 성공회 나눔의 집 대표이사이신 송경용신부(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님이 추진하고있는 '함께사는 세상' 건립을 위한 봉천동 나눔의 집 '후원의 밤' 행사가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있었습니다. 김호현, 권오헌함께 하고,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12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 공동주최로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다.

-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토요캠페인 양심수후원회와 김대원석방대책위 등 공동으로 탑골공원 앞에서 벌이다. 모의감옥 설치 서명 받다.
- 강화천주교 갑곳돈대 순교자성지에서 강화양민학살 희생자 유족회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주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후원으로 '강화민간인 학살 희생자 추모 위령제' 열리다.
- 집행부 주례모임 있었습니다.

13 대전교도소 앞에서 민혁당대책위 주관으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고난의 행진 중간보고대회와 작은 문화제' 열리다. 대책위 윤용배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여는말, 고난의 행진 최진수 단장의 보고, 한총련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의 정치수배 해제 촉구발언 등 문화제 진행되는 동안 임기란, 조순덕, 홍성순, 최진수, 권오헌 등 하영옥씨 면회하다.

- 전주 원암 수양관에 계신 김경선(2차 송환희망)선생님이 급성폐렴 등 증상으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고 통보 받다.
- 역사강좌 있었습니다.

14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강희철열사 빈소 문상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강희철 정치위원장은 지난 7일 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해오고 있었음.

- 연세대 정치수배자 모임 사무실 방문. 앞으로 활동일정 등 논의하다.
- 정재욱 한총련11기 의장은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당국자 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합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하고 새로운 학생운동 강령을 마련해 하반기 대의원대회에 내 놓겠다고 밝힘. 또한 한총련은 5월에 학생운동진영 공동출범식 '10만 반전평화 페스티벌 개최, 6월 15일 한총련의장 평양방문추진, 8월 대학별 2003반전평화 유니버시아드 개최, 전국학생 금강산 모꼬지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다.

2003년 4월

15 민족민주열사 강희철동지 민족통일장 영결식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다. 한충목 장례집행위원장 사회로 약력, 경과보고(박세길),추도사 오종렬 장례위원장, 조사 라창순 범남본의장, 정현찬 전농의장, 권낙기 통일광장대표 등이 있었고 '희망새'의 조가, 조시 정보선, 부활굿 춤패 '출', 헌화순으로 이어졌음. 고인은 오후 1시30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 묻히었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강금실 법무장관은 한총련정치수배자 가족과 한총련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 이덕우 변호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변화상을 지켜보면서 한총련수배해제 문제를 검찰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입장발표 대책위에서는 한총련수배자 일괄적으로 불기소하여 수배해제 할 것을 촉구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SOFA개정 국민연합, 용산운동본부, 매향리대책위 등 공동으로 43차 반미연합 집회 열다.

16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부터 3일 동안 조?미·중 북핵 3자 예비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힘.

- 후원회소식 138호 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김.

17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 묘소에서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55돌 기념식을 갖다. 민경우 통일연대 자통위원장 사회로 신창균선생이 회고말씀. 라창순 범남본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윤한탁 실천연대 대표 등 기념사가 있었음.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백범 김구선생 기념관 제2 교육장에서 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55돌에 즈음한 시국토론회 열리다. 정대연 통일연대정책위원장 사회로 신창균 선생의 인사말, 김남식 선생의 발제, '48년 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노중선, 주종환, 최규엽씨 등 토론이 있었음.

- 민가협 468회 목요집회- 하영옥씨 석방을 위한 특별 집회였음. 여는말-임기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권성희 어머니(하영옥씨 어머니), 암투병중인 사랑하는 내 동생 소중에게- 김미중 (김소중씨 언니), 하영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서경순어머니.
- 국방부 앞에서 자통협 등 여러 단체 공동으로 '한국군 이라크파병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고 인천공항으로 옮겨 파병규탄 공항시위를 벌이다.
- MBC 100분 토론에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 토론자로 나서 한총련 이적규정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법화 역설하다.
- 138호 소식지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김숙희, 송창학, 주경임, 송인영, 송인석, 이봉주, 이용준, 이창희, 김미성

18 4월 혁명회는 홍사단강당에서 4월 혁명 43주년 선언과 제14회 4월 혁명상시상식 및 상지대 강만길 총장 초청 특별강연 '통일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 행사 진행하다. 이번 4월 혁명상은 '미군장갑차 故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에서 받고 홍근수 대표가 수상소감을 말하다.

- 한국 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형무소 수감자 집단학살보도와 관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

19 수유리 4·19기념탑 앞에서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4월 혁명 43주년 합동참배가 4월 혁명회 주최 민중연대 주관으로 열리다. 정광훈, 권영길, 홍근수목사의 기념사와 김준기4월 혁명회 공동의장의 4월 혁명 43주년 선언 낭독이 있었음. 이어 분향시간을 갖다.

-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현장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 4월 혁명회 등 공동주최로 4·19맞이 박정희 기념관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필우 상임대표의 여는말, 경과보고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김상민 홍익대총학생회장, 함세웅 신부의 건립반대 촉구 발언이 있었으며 퍼포먼스 이관복대표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광화문교보빌딩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 청소년대책위원회 주최로 4·19 반전평화청소년 행동의 날 행사가 열리다. 같은 장소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하는 '살인미군 처벌 부시사과 소파개정 이라크 민간인학살 미군규탄 4·19정신계승 제145차 민족자주 반전 평화 촛불대행진' 열리다.

20 양심수후원회 4월 회원산행이 있었음. 모두 12명이 가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 모여 소귀천 계곡- 소귀천 능선- 북한산성 - 동장대 - 대동문 - 진달래능선 - 구천폭포 - 구천계곡 - 아카데미하우스 길로 내려오다 비가 오고 있기에 준비해간 도시

락도 먹지 않고 소개시간도 없이 강행군하다. 4·19 묘소 참배하고 뒤풀이를 끝으로 산행 모두 마침.(유기진, 김수룡, 변숙현, 김교영, 강담, 신현익, 이득형, 양계숙, 이봉주, 이창희, 이종섭, 권오헌)

- 4·19 43주년기념 미군기지 신설반대를 위한 거북이 마라톤대회가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송산동 주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의정부시 송산동 일대에서 열리다.

21 최기문 경찰청장의 '한총련 대의원의 검거활동을 철저히 하겠다.' '소배경학생 교생실습이 끝나는 대로 검거하겠다.' 등 발언과 관련 한총련 수배자가족 박찬양, 방영숙, 송종석, 김낙희, 이주연님과 우대식 한총련 11기 대변인, 권오헌, 한총련범사회인 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경찰청을 방문 엄중 항의하다. 경찰청장을 대신해 면담에 나온 안명선 보안2과장, 박종위 정보4과장에게 청장 발언에 대한 항의와 한총련 대의원 연행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항의서 전달.

- 서초동 이기욱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기욱변호사(양심수후원회 부회장)송창학, 이창희간사, 권오헌대표 등 양심수후원회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열고 회칙개정 부분 마지막 정리하다.

22 민가협사무실에서 민가협운영위원회 열다. 활동·재정보고에 이어 사무실 이전문제, 사면결과에 대한 입장과 기자회견문제, 목요집회 방향성 등 논의.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대표단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과 면담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2상임위원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려는데 강력한 반대의지를 전달하다. 권력기관의 가해행위를 밝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공무원은 오히려 역작용이 될 것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다. 오종렬, 남상헌, 강민조,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와 김학철, 박영희 사무국장 등 함께 하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박장홍 부의장이 부산김해공항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단체가입)로 경찰에 강제연행 서울옥인동 보안수사대에 구치조사 하고 있음. 한청회원들과 민가협회원들 보안수사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 등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하는 등 국가보안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등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 삭제를 밝혔음. 또한 한총련은 강령개정 등 변화를 보이는 만큼 정부도 변화된 사고로 대응하는게 옳다고 입장 밝힘.
- 법무부당국자는 노무현대통령이 1,418명에 이르는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안에 최종 서명 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관련사범이라며 대공사범 143명, 한총련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 관련사범 568명, 집단행동사범 343명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 발표한다고 전했다.

23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금연 정일형 박사 21주기 추도식과 제7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이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가 기념사업회 주최로 있었음. 이 시상식에서 민주·통일부문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봉사 부문에 허병섭 목사가 수상하다.

- 과천종합청사 민원실 로비에서 이석기씨 노모님과 민혁당대책위, 민가협회원은 사면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기씨 누님 이경진씨와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가 법무부 김경수 검찰과장을 면담하고 이석기씨를 비롯한 양심수전원석방과 한총련 정치수배학생들이 수배해제 조치를 촉구하다. 김과장은 이석기씨가 사면대상자 인지 사면기준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뜻은 상부에 잘 보고하겠다고 답변. 면담을 마치고 민원실 로비에 와서 면담내용을 보고하고 오늘 농성시위를 끝마치다.
-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한청 박장홍 부의장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한청회원들과 사회단체 성원들 규탄집회를 열고 박부의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정기총회, 총회보고서 원고 등 밤새워 최종교정하다.(이창희, 김미성)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중국은 중국 베이징의 영빈관인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2박 3일 일정의 이른바 북핵문제 회담에 들어가다.

24 향린교회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범 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 열다. 참석자 확인, 사업보고에 이어 토의안건으로 6·13미선이 효순이 1주기 추모대회 기획안, 6·13 1주기 추모대회 범국민 준비위원회 결성 및 10만 준비위원 조직위 운동본부 설치

안, 재정결산 보고 등 토의.

- 연세대 본관 3층 소강당에서 노무현 국민참여정부 첫 사면에 즈음한 한총련관련 정치수배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정치수배자모임과 수배자가족모임 공동으로 열리다. 송용한(7년수배) 사회로 기자회견 인사말(권오헌), 수배해제 촉구 발언(임기란, 이승은[신승헌모친]), 정치수배자들이 노무현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유영업 7년)가 있었고 질의응답이 있었음.
- 민가협 469회 목요집회
- 안국동느티나무 카페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영구, 서동만 국회청문회에서 인신공격과 색깔 공세로 일관한 국회정보위원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다.

25 연세대 푸른샘에서 한총련청치수배자모임과 수배자가족모임 공동으로 한총련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회견에 앞서 오종렬 전국연합의장의 수배해제촉구발언과 유영업 수배자모임 대표의 한나라당과 청와대 방문 일정 등 발표하다.

- 한총련정치수배자모임이 한나라당 대표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는 가운데 수배자가족(박환양, 김낙희, 방영숙)과 범사회인대책위 권오헌 상임공동대표 한나라당사에 도착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거부와 함께 경찰이 당사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다. 연세대에서 버스 두대로 뒤따라온 수배자 가족과 청년·학생들이 면담을 요청하며 당사진입을 시도했으나 100여명의 전경을 동원, 폭력으로 막아서다.
- 수배가족 등 50여명이 청와대 근처 청운동에서 정치수배해제 촉구 농성을 하는 가운데 수배자가족 9명(박환양 외 8명)과 권오헌 범사회인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강위원 집행국장 등 11명이 청와대 시민사회부처 최종환 행정관을 면담. 가족들의 의견서 등 전달하고 수배해제를 촉구하다. 면담이 끝난 다음 청운동 파출소앞 민혁당대책위 농성장에서 함께 집회를 하고있는 수배자가족들에게 면담내용 등 보고하면서 26일 민정수석과 한총련의장 범사회인대책 관계자 면담 약속을 발표하다.
- 노무현대통령은 고영구 후보자를 신임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다.

26 정재욱 한총련 11기 의장과 한총련 수배자가족(박환양박제민부친, 유영업모친, 신승헌모친)그리고 한총련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권오헌 상임공동대표 강위원 집행국장이 정부청사 별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문재인 정무수석을 만나 양심수후원석방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면담대표들은 특히 기결 양심수는 선별 없이 모두 석방해야하며 정치수배해제조치도 양심수특별사면 차원에서 전원 불기소처분으로 수배해제 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 면담은 법적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총련의장을 만나 한총련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 민가협양심수후원 제15차 정기총회가 종로 5가 기독회관 2층 대강당에서 회원과 사회단체 대표성원 등 1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음. 사전행사로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투쟁 영상상영(민중의 소리제공)이 있었고 총회 1부는 이기욱(변호사)부회장 사회로 여는말과 민중의례에 이어 박용길(지도위원)장로님의 모시는 말씀. 권오헌 회장의 오신분 소개 김규철(지도위원)총준위원장의 총회준비위 경과보고를 하였음. 이어 14차 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를 권오헌 회장이, 감사보고를 노중선 감사가 했고, 큰 박수로 승인했음. 이어 후원회 사업에 크게 헌신한 모범회원 등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김승훈신부님(지도위원), 김수룡선생님(장기수선생님), 한상권교수(운영위원, 역사강좌). 신현익, 류희영, 김혜식, 신미순 회원,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그리고 사무국간사로 애쓰다가 떠나게 된 이창희, 고광희 회원에게 박용길, 홍근수, 김규철 지도위원과 권오헌 회장이 나누어 전해주었음. 이어 회칙 개정안을 큰 박수로 통과시켰고 새 일꾼선출에서는 주경임 회원의 총준위안을 받아들여 회장단과 운영위와 모두가 유임하는 것으로, 감사 선출에서는 김숙희 회원이 제안한 14차 년도 감사를 유임하게 하자는데 박수로 채택했음. 이어 회장단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간사, 소모임대표 등 새 일꾼들이 나와 인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권오헌 회장은 박용길, 김승훈, 홍근수, 김규철, 김영옥선생님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함께 인사를 했음. 다음에는 노래패 '꽃다지' 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15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한상권 운영위원이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이어 고성화(출소장기수), 임기란

(민가협전상임의장), 라창순(범남본의장), 홍근수(지도위원, 자통협상임대표)목사님의 격려 말씀이 있었음. 그리고 이일규 회원이 낭독한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과 이용준회원이 읽은 총회결의문을 큰 박수로 채택하는 것으로 1부 순서 마침. 2부는 지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행사 모두 마치다. 오늘 총회에는 민가협어머님들 유가협회원들을 비롯하여 임방규선생님 외 통일광장 여러분, 신창균, 이종린, 라창순 의장 등 범남본 선생님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외 여러분, 황건 4월혁명회 상임대표 외 여러분, 양비엔나수녀님, 이재환 통일뉴스대표, 안재구 선생님외 사회원로들이 함께 해주셨고 이미경 의원 등 축하전문을 보내주셨음.

- 반미반전 불가침조약체결촉구 운동본부주최로 탑골공원 앞에서 반미반전평화와 주말마당 행사가 열렸음. 행위예술, 노래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27 연세대 정문앞 정치수배자가족 농성장에서 민혁당대책위와 정치수배자 모임 공동으로 양심수 도보순례단 활동보고, 양심수 이석기씨 석방, 한총련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윤용배 이석기씨석방대책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참가자소개 기자회견 취지말 (권오헌), 경과보고(사회자), 최진수 순례단장의 이석기씨 석방촉구 발언, 문재인 민정수석 면담 이후 입장 및 수배자가족 활동계획을 유영업대표가 발표 등으로 기자회견 마침.

- 같은 장소에서 도보순례단 환영 및 이석기씨석방촉구 정치수배촉구 집회가 열림. 민혁당대책위와 여러 사회단체, 청년단체, 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대표의 도보순례단 환영 및 양심수전원석방 촉구연설, 한총련 선배들의 의견발표(정명수, 김재용, 강위원 등)순례단 인사, 광화문, 교보빌딩 앞까지 거리행진하고 그 자리에서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촛불집회를 열었음. 이날 행사를 위해 송창학 간사는 모의감옥을 운반해 왔으며 이정태, 주경임, 이창희, 송인석, 송인영 회원 등이 함께 했음.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한총련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바라는 선배일동이 한총련학생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씨, 2기 의장 오영식 의원, 복기왕 전대협 동우회장 한총련 1기의장 김재용, 3기 의장 정태홍, 5기 의장 강위원씨 등이 함께 했고 6000여명의 전대협 한총련 선배들이 수배해제 촉구 선언에 함께 했음.
- 제10차 남북(북남)장관급 회담이 평양고려호텔 회담장에서 열려 긴장해소와 6.15공동선언이행에 따른 남북현안을 다루게 되다.
- 미국은 이북이 베이징회담에서 밝힌 「대범한 제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 ·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

28 이마빌딩(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2 상임위원으로 청와대에서 홍창의(공무원)씨를 내정한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취지말, 민주노총위원장(대리)의 기자회견문 낭독, 남상헌 상임공동대표의 앞으로 활동계획 등 발표, 계승연대에서는 공무원 파면을 계속 반대하는 청와대 1인 시위와 홍창의씨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입장 발표.

- 양심수후원회 편집모임이 안국동 만복정에서 열림. 후원회소식 138호를 평가하고 139호 제작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주제와 필자선정 등을 하다. 여혜정, 이승미, 박정범, 이창희, 하재광, 김미성, 김호, 권오헌 함께함.
- 양심수후원회원들이 연대앞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촛불집회에 함께하다. 이득형, 송창학, 주경임, 변의숙, 김민정, 양계숙, 고광희, 김숙희, 조상희, 이용준, 김호근, 유선화 함께 했고 주경임, 김숙희 회원이 캠페인 원고를 낭독했음.

29 법무부는 노무현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양심수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 · 복권을 30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하다. 특별사면대상자 유형별로 보면 '공안사범' 149명 한총련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단행동사범 343명이라 했음. 이번 사면조치로 구속양심수 13명이 오늘 5시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났으나 이석기씨 등 3명은 형 확정 기결양심수였음에도 제외되었고 미결양심수는 모두 제외되었다. 또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치도 없었음.

- 4 · 30 양심수특별사면으로 출소하는 민혁당사건의 하영옥씨를 마중하는 민혁당대책위, 민가협, 양심

수후원회, 대전지역 사회단체 성원들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하영옥씨 출소 환영식을 대전철도노조 박태만씨 사회로 진행. 임기란, 안응창, 권오헌, 최진수씨등 환영사와 하영옥씨의 출소 소감을 들었다. 하영옥씨는 막바지 아내의 입원소식 등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분들의 석방투쟁에 힘입어 용기를 갖게되었다. 이번 사면에 제외된 양심수석방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음. 이보다 앞서 하영옥씨가 옥문을 나서기전 교도소 정문 앞에서는 양심수전원석방 및 정치수배해제 촉구대회를 열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선별사면을 규탄하고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연설을 들었음. 한편 이날 같은 시간 하영옥씨말고 부산교도소에서 박경순씨가 많은 사람의 마중을 받으며 출소했고 강성철(전해투-여주), 김혜신(범청학련-원주), 박용진(민주노동당강북을지구당-의정부), 김강일(안암동철거대책위-여주), 유병권(경원대-안양), 김경환(민혁당-안동), 김대원(한총련방북대표-전주), 임태열(민혁당-전주), 이창호(동아대한총련조통위-진주), 양승종(민중대회)씨 등이 출소했음.

- 성남 경원대 C동 2층 강당에서 민혁당 대책위주최로 '이른바 민혁당 출소자 환영 및 선별사면 규탄대회를 하영옥, 임태열, 유병권, 박정세씨가 함께하고 (김경환씨는 거리가 멀어 함께하지 못했음)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용배 집행위원장 사회로 열다. 권오헌, 최진수, 이용대씨의 환영사와 출소자 4명의 출소인사 그리고 문화공연, 뒤풀이 시간을 가졌음.
-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박경순씨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울산, 부산, 서울에서 달려온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간단한 환영식을 했고 이어 울산으로 옮겨 울산 북부공단 이조캐터링 구내식당에서 170여 사회각계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충목, 이은미씨등 환영사와 박경순씨 인사말이 있었음. 부산교도소에는 민가협에서 조순덕 상임의장이 마중갔고 전주교도소에도 민가협 어머니들이 마중 다녀왔음.
- 연세대 앞 정치수배해제 촛불집회에 양심수후원회에서 이일규, 이창희, 김미성, 변의숙, 이득형, 장재영, 송창학, 심주이, 이승미 회원 함께.
-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이 연세대 촛불집회가 끝난 뒤 있었습니다. 송창학, 이승미, 변의숙, 이득형, 장재영, 이일규, 김미성, 이창희

30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대 총학생회장으로 서총련의장과 한총련 대변인을 맡았던 한총련대의원으로 5년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박제민학생을 경기대 후문 식당에 나가는 것을 잠복했다가 미란다원칙제시도 없이 장안동 보안수사대로 강제연행 조사를 하고 있음. 아버지 박환양님과 정치수배자 가족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등 보안수사대에 가서 강제연행 규탄, 경기대학 등 서총련학생 100여명이 와서 규탄집회와 석방을 촉구하다. 장경욱 변호사와 가족들이 먼저 면회를 했었고 이어 학생들 경찰과 몸싸움하면서 면회 요청하다. 밤9시경 박제민군 아버지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서총련 임지훈 부의장, 경기대생 김꽃이슬 네사람 면회하다. 박제민군은 미란다원칙 제시 없이 강제연행 당해 왔다며 한총련합법화,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임을 확인. 면회마치고 나와 학생들에게 면회보고(권오헌, 임지훈)학생들 밤 9시 40분쯤 정리집회를 마치고 고려대 노동절 전야제 현장으로 옮김.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연세대 정치수배자 모임 사무실에서 홍익대학교 방송실기자와 양심수, 국가보안법 등 관련 인터뷰하다.
- 연세대 앞 정치수배해제 촉구 촛불집회에 양심수후원회 이창희, 송창학, 주경임, 김미성, 김민정, 한수정, 이진, 정윤성, 김숙희, 심주이 회원들 함께.
- 촛불집회 끝난 뒤 연세대앞 민들레 영토에서 시사모임 하다. 송창학, 주경임, 김미성, 이진, 정윤성, 이창희, 한수정 함께.
- 종묘공원에서 서총련 등 전국 학생투쟁위원회 주최로 전쟁반대, 파병반대, 미국반대, WTO개방반대, 노동절 사수를 위한 투쟁대회를 열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종로2가 YMCA앞까지 거리행진을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신용산역, 삼각지역 사이 차로를 점령하고 전쟁반대, 미국반대 시위를 했음.
-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자, 청년, 학생 등 2만여명이 모여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을 결의하다
- 출소 장기수선생님들께 지원금을 보냄.
- 양심수 25명에 영치금 2만원씩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